

2024년도 수업 나눔 협의록

협의 일시	2024. 4. 25.(목) 13:25~13:45	교과	기술·가정
수업 일시	2024. 4. 24.(수) 3교시	수업자	이○영
협의 장소	교장실		
참가자 명단	교감, 고○영, 이○영, 강○균		
수업 주제	청소년기 영양		
협의 내용	<p><수업자 소감></p> <p>※ 이번 수업을 준비하고 공개하면서 수업 속 고민(딜레마)은 무엇이며,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였습니까?</p> <p>이○영 : 교과도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참여율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. 재미있게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 방식에 대한 갈증이 항상 있는 편입니다. 이번 수업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, 그러나 너무 어렵지는 않게 하려고 준비하였습니다.</p>		
	<p><참관자 소감></p> <p>교감: 작년 수업과 비교했을 때 꽤 발전된 수업이었음. 학생들이 수업 방식(경쟁)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수업할 내용에 초점을 둘 수 있게 수업을 설계하고, 중간 중간 피드백과 정리를 해줌으로써 수업 내용을 구조화할 수 있게 한 점이 좋음.</p> <p>고○영: 짝모둠수업, 수행평가 연계 수업활동 등 소외된 학생없이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이었음. 수업과 평가가 일체된 형태로 배움과 성장이 잘 잘 일어남. 다만 주제를 연상하는 활동을 영어로 준비하여 1학년 학생들이 하기엔 조금 난이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과 문장 카드를 영양소별 기능을 연결 시 다른 색깔 분필을 사용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듦.</p> <p>강○균: 짝모듬을 구성하여 모든 학생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설계한 점이 인상깊음. 짝공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면서 배울 내용을 스스로 찾게 하는 수업 방식이 효과적이었고, 일방적 지식 전달이 아닌 능동적 사고를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점이 좋은 수업이었음.</p> <p><질의 응답></p> <p>Q1. 개별 과제로 ‘청소년기 영양이 중요한 이유 쓰기’를 마지막에 제시하였는데, 혹시 학생들은 미리 과제를 알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닐지요?</p> <p>A: 그건 제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. 학습목표 제시 때 마지막 과제가 이러한 것이니 과제 해결을 위해 학습목표를 달성하자는 이렇게 수업을 이끄는게 더 나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.</p> <p><수업자 마무리></p> <p>※ 선생님이 수업 공개와 나눔을 통해서 느낀 점과 나의 수업 성장을 위해 도전하고 싶은 과제는 무엇입니까?</p> <p>- 수업 내용 도달을 위한 방법에만 항상 초점을 두다 보니 중요한 것을 간과했을 수도 있구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작년 학생들이 선생님 수업은 정말 재미있는데, 시험이 무척 어렵다고 했을 때 뭔가 중간에 정리해서 체계화 시켜줄 필요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미있게 잘 알아가는 수업을 위해 더 연구하고 매진하겠습니다.</p>		